

인터넷 고려대장경 시대 '열린다'

고려대장경, 상설사이트 31일 개설

정부 중단 지원받아 3년여 준비 '한국불교 우수성' 네티즌에 홍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보고 연구할 수 있는 신기원을 마련한 셈이다. 이 사이트는 고려대장경의 △경판 이미지 △해설 사전 △색인 목록 △한자 사전 △불교용어 사전 △전산본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판 이미지'는 낱말의 인경본을 고화질 그래픽으로 제공하며,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해설 사전'은 대장경에 수록된 1514개 경전을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 해제 사전을 제공한다.

또 '불교용어 사전'은 대장경에서 자주 사용된 용어에 대한 사전

적 해설을 하고 있으며, '전산본 다운로드'는 훈민정음으로 작성된 전산본 대장경을 불자 네티즌에게 쉽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메뉴.

종립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목관본이라는 문화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정보로서의 가치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전세계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삼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사이트 개설의 의미를 밝혔다.

연구소는 인터넷 서비스를 계기로 2000년 12월경이면 정자와 이체자 구분 검색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문장부호의 수용으로 경전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가 31일 오픈하는 '고려대장경' 사이트에서 '반야심경'을 검색한 모습. 인경본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검색이 가능하다.

이해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한 고려대장경 CD롬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고려대장경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한문본 뿐만 아니라 한글본이 함께 제공되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유럽불교연맹

유럽불교단체 활동-역할 '한눈에' 타종교 단체와 대화의 장도 마련

유럽에서 부처님의 수행과 교리를 펴고 있는 단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곳은 바로 유럽불교연맹(The European Buddhist Union, 이하 '연맹')이다.

연맹은 유럽의 모든 불교 조직이 망라된 센터로, 이들 단체의 우산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연맹의 활동과 사업은 열람할 수만 있다면, 유럽 불교 단체의 위상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연히 인터넷 상에 개설된 연맹 사이트를 '클릭'하면 된다.

연맹체 성격과 띠고 있는 연맹은 모든 불교종파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이 곳에서는 연맹의 '연혁' '목표' '산업' 등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연맹은 1975년에 설립과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연맹은 매년 유럽의 불교단체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유럽불자대회'를 마련하면서, 유럽 불교인이 서로 협력하고 친분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 왔다. 유럽 불자들의 공감대 형성에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한 셈이다.

'사업' 메뉴에서는 연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즉 유럽불교단체와 기관에 대한 '옐로우 북'(yellow book)을 만들고, 유럽 불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유럽불교연맹의 라마 데니스 톤트로프 공동회장은 "유럽에 있는 불교 단체들의 상호협력과 우의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연맹의 방향을 설명했다.

들이 유럽 불교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정보는 2000년부터 인터넷으로도 제공된다.

또 △불교와 교육은 유럽 불자들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불교 교리 교재를 발간하는 사업이다. 이렇다할 교재가 없어 시작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불교교육 관련 교재 목록과 불교교수법 관련 목록집을 준비해 불교 교육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맹은 불교 종파간 이질적인 교리에 대한 관점을 서로 교환하고 배우며, 다양한 연설회의를 통해 상호협력력을 증진하고 있다. 97년 베를린에서 열린 연맹의 연설회의에서는, 티벳불교 인도불교 등 다양한 종파에서 재가불자에게 권하고 있는 생활선(禪)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연맹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타종교 단체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도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종교간 이해와 조화를 모색하는 모임인 연맹 부설 '유럽의회'는 유네스코(UNESCO)와 같은 국제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닐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유럽불교연맹의 라마 데니스 톤트로프 공동회장은 "유럽에 있는 불교 단체들의 상호협력과 우의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연맹의 방향을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http://www.sbg.ac.at/budd.edu.htm



"석굴암 본존불 十佛을 표현"

박찬홍-배진달 교수 주장

석굴암 본존불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등 특정 부처님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우주에 두루 계시는 십불(十佛)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한 세미나에서 두 학자에 의해 동시에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가 10일·11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고려대 박찬홍 교수와 용인대 배진달 교수를 각각 '석굴암의 연구사 정리'와 '석굴암과 각종 석굴사원의 관계'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적(史的) 측면에서 석굴암을 정리한

박 교수는 "석굴암의 본존불은 초기에 일반적으로 석가불이라고 불리워졌으나 (화엄경)을 사상적 기반으로 할 때 아미타불로, 도상적으로는 비로자나불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며 "석가불에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배 교수는 중국과 인도 석굴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석굴암 구조의 연원과 특성을 밝히고 석굴암이 아닌 '석불사'가 옳다는 견해를 밝혀 박 교수의 주장을 구체화 했다. 배 교수는 "8세기 중엽의 상황이나 당시 화엄사상을 주도했던 의상계열 스님들이 석가모니불이나 비로자나불의 명호를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십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본존불의 본존상은 특정한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석불(石佛)이라는 사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주의 어느 곳이나 계시는 십불 즉 범만불(遍滿佛)을 표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인도철학 연구는 불교학 발전 초석"

이지수 교수 주장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도철학 연구가 바로 서야 한다." 3일 동국대학교 동국관 401호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제10회 연구발표회에서 이지수(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인도철학 연구가 위축되면서 선학과 불교학마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해, 학계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교수의 '한국의 인도철학 연구와 논문의 개념'에 따르면 인도철학은 불교의 심연을 이해하는 필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교와 무관한 학문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이

다. 반면 일본은 9개의 국립대학에 인도철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도철학과 불교학이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교수는 인도철학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커져야 하고, 또 인도철학계는 고전적 텍스트에 대한 번역과 실명이라는 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철학 역사가 10년 정도밖에 안된 우리는 선진국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편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Jnanayoga 패러다임으로 본 금강경의 아홉 다라삼막삼보리(삼보리) △미투나 상의 사상적 배경과 의의(정승석) △상카라의 유식설 비판의 근거(이호근) △삼불과 조함, 용수의 연기설과 분석철학(홍성기) △상카라철학에서의 마야 개념(박영길) 등 논문이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비판불교 6차 발표회

여래장, 본각, 해탈 등 전통적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 왔던 개념들에 대해 반불교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일본 불교학계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마츠모토 시로 교수(일본 고마자와 대학)와 국내학자 및 불자들이간의 진지한 토론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는 18일 오후3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

세미나실에서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마츠모토 교수의 공개 강연과 토론을 개최한다. 이번 제6차 발표회에서 마츠모토 교수는 '비판불교 관련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02)797-0585

사찰조경연구 학술회의

사찰조경연구소(회장 홍광표)의 제3회 정례학술회의가 18일 동국대 도서관 3층 교육매체실에서 열렸다.

'불국사의 건축과 조경', '불국사의 보존과 복원'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불국사의 경관(정기호)', '불국사의 수경관 복원(홍광표·이상운)', '불국사의 직제(김남

철·하재호)' '불국사의 보존(한상건)' '불국사의 건축적 복원(김봉건)'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561)770-2521

동악미술사학회 창립총회

한국미술사학 및 인접 학문의 연구 활동과 그 발전을 위한 동악미술사학회가 15일 오후3시 동국대학교 90주년 기념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축사와 '뉴밀레니엄 시대의 불교와 문화'를 주제로한 송석규 동국대 총장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02)2260-3845

중 신강 '제2돈황석굴'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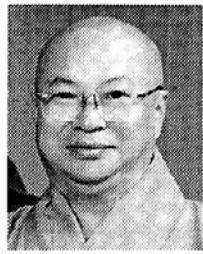
중국 신강 위구르족 자치구의 고차에서 돈황석굴에 버금가는 당(唐)대의 불교석굴이 발견됐다고 북경신보가 7일 보도했다.

석굴이 발견된 곳은 천산산맥의 지맥인 커즈리야 산(山)의 한 협곡으로, 이곳은 구 서역 구자국의 북쪽 경계선 도로가 있던 곳이다.

석굴의 벽면에는 15m 넓이의 채색 벽화가 온전한 상태로 보존돼 있고, 이 벽화 속에는 묵으로 내리 쓴 다량의 한문기록이 발견됐다. 한문 기록에는 배(裴) 조(趙) 양(梁) 구(寇) 이(李) 백(白) 신(申) 부(傅) 사(似) 등 성씨에 관한 기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씨가 흑염자(검은개)와 감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형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장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8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어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탄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며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영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 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중풍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동산물로 만든 경유고(경유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범훈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가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시미」 성분을 대량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병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